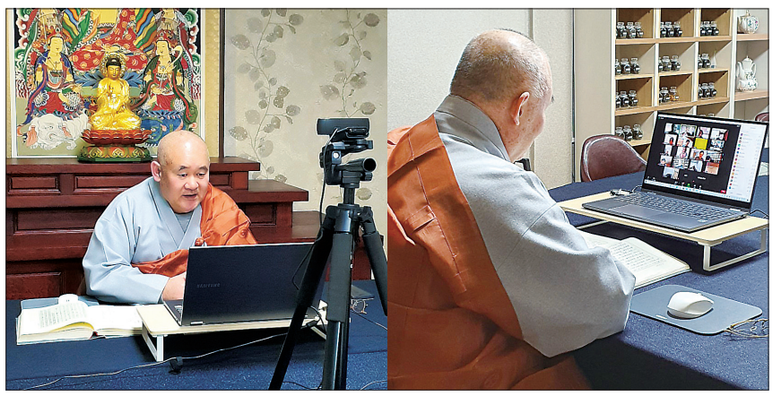
‘정해학당’, 온라인 강의로 새 활기

위드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모델로 성장

온라인 경전 강의 참여도 높아
서울 개원 이끌어낸 성과 눈길
경전 공부 즐거움 시공간 넘어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안동 보경사 부설 정해학당이 ‘줌(zoom) 온라인 경전 강의’로 새로운 활기를 띠고 있다.

12년 동안 이어온 오경 스님의 경전 강의가 온라인 강의로 진행되며 새롭게 활기를 띠고 있다. 코로나로 인한 대면 강의 중단으로 온라인 강의 전환 후 뜻밖의 성과를 거둬 코로나 시대 새로운 모델로 떠올랐다.

안동 보경사 부설 정해학당(원장 오경)은 ‘줌(zoom) 온라인 경전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오경 스님의 zoom 경전 강의에는 부산, 안동, 대구, 서울 등지에서 40여 수강생들이 참여하고 있다. 기존 수강생 30명에 서울 정해학당까지 포함해 최근 수강생이 10여 명 더 늘었으며 지속적으로 회원이 늘고 있는 추세다. 이번 줌(zoom) 온라인 경전 강의를 통해 새롭게 서울 지역에서는 비대면 개원도 진행됐다. 기존 부산, 안동, 대구에서 개원을 했지만 여러 사정으로 서울은 미뤄지고 있었다. 오히려 줌(zoom) 온라인 경전 강의를 통해 서울 사람들이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강의를 듣게 됨으로 개원까지 이르게 됐다.

정해학당은 2009년 부산에서 개원 후 서울, 부산, 안동을 오가는 강행군 속에서도 12년 동안 휴강이 없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해 오경 스님의 ‘정해학당’ 경전 강의는 대면 강의가 어려워지면서 처음으로 휴강할 수밖에 없었다. 스님은 처음 휴강 때는 다음 주면 재개 되겠지 하고 가볍게 생각했다고 한다. 휴강이 한 달 넘게 이어지자 강의를 듣던 수강생들도 ‘이대로 강의가 없어져 버리는 건 아닌가?’ 하는 위기감을 느꼈다. 대책이 시급했고 스님은 반신반의하면서 줌(zoom) 강의를 시작했다.

오경 스님은 “처음엔 걱정이 많았다. 마이크만 앞에 놓고 혼자 강의를 하는 게 되겠는가 싶었는데 오히려 내가 있는 공간에서 강의를 하니 집중도 잘되고 수강생들은 일대일로 강의를 듣는 것 같아 더 집중하게 됐다”며 “게다가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절약되니 세 시간 강의가 끝나도 1시간 정도 더 논강을 하게 되어 공부 열기가 뜨겁다”고 설명했다.

스님은 코로나로 대면 법회를 못한다면 온라인 법회나 강의를 걱정하지 말고 시도해 보라고 권하고 있다.

수강생들의 반응도 좋다. 오고 가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어느 장소에서든지 들을 수 있고, 또 거동이 불편하거나 대면강의가 불가능한 사람도 온라인 강의에 참여할 수 있는 장점을 꼽고 있다.

오경 스님의 강의는 기본 세 시간 동안 질문과 토론으로 진행된다. 현재 정해학당 온라인 강의는 첫째 주와 셋째 주 금요일 오후 7시~10시에는 대승기신론 해동소, 둘째주와 넷째주 수요일 7시~10시에는 금강경 오가해 강의가 진행된다. 처음부터 수강하지 않아도 반복해 경전 내용을 설명하기 때문에 수강신청은 언제든 가능하다. 정해학당은 코로나가 끝나고 대면강의가 가능해져도 온라인 강의를 계속할 방침이다. 온라인 강의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면서 분기별로 나누어 대면 수업을 진행해 온라인 수업의 한계도 보완할 예정이다. 강의 신청 문의는 안동 보경사(054-842-4080)로 하면 된다.

오경 스님은 “조금 더 깊이 있게 불교를 공부하고 싶어 하는 이들에게 공간적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온라인 강의를 이어갈 것”이라며 “시공간의 제약 없이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강의를 통해 많은 이들이 함께 경전 공부의 즐거움을 공유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오경 스님의 경전 강의는 멀리서 듣고 찾아갈 정도로 명강의로 인정받고 있다. 스님은 정해학당 개원 전부터 화엄학림에서 강사로 활동했다.

한마음선원 울산지원, “인재불사 도량 굳건히”

2월15일 대웅전 법당서 2021년 장학금 전달식

대행선사 유훈 잇기 위해 힘든 시기지만 인재 불사
호계고등학교 졸업생 4명 총300만원 장학금 지원해


한마음선원 울산지원은 2월 15일 대웅전에서 2021년 장학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한마음선원 울산지원이 코로나 기간에도 지속적인 장학사업으로 학생들을 지지하고 있다.

한마음선원 울산지원(지원장 혜안)은 2월 15일 대웅전 법당에서 2021년 장학금전달식을 진행했다.

장학금 전달식에는 지원장 혜안 스님, 조영록 호계고등학교 교장, 정명득 3학년 부장, 호계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참석했다. 학생들은 이번 해 대학에 입학하는 신입생들이며 울산과학대, 울산대, 동서대, 영남대 등에 합격했다. 조영록 호계고 교장은 “어려운 가정 환경에도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모범이 되는 학생들”이라고 소개했다. 장학금은 총 300만원이다.

학생들은 스님들과 불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성장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고 도움의 손길을 받은 것처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말했다.

지원장 혜안 스님은 “학생들의 성장을 위해 응원하며 지원해주신 기금은 학생들의 희망이 될 것이다”며 “오늘 참석한 학생들은 잘 성장해 가정과 나라의 일꾼으로 든든하게 성장해 주시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조영록 교장은 “코로나로 인해 더욱 힘든 시기인데 스님과 불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에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린다”며 “오늘 전달해주신 장학금은 성장의 밑거름이 되고 학생들은 다음 세대를 위한 기둥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마음선원 울산지원의 장학 지원 사업은 20년 전부터 시작됐다. 소아암환자를 위한 합창제에서 대행 선사는 울산 북구 지역 학생들을 위한 지원을 당부했고 지원장 혜안 스님은 묵묵히 유훈을 잇고 있다.

지원장 혜안 스님은 “당시 울산 북구는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아이들은 불심을 가지고 자신들의 부모님을 위해 등을 만들고 기도하는 효심을 보였다”며 “순수하고 따뜻한 마음을 보았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대행 선사의 유훈을 잇기 위해 스님과 불자들은 도량 곳곳에서 장학지원을 위한 노력을 펼쳤다. 다실에서 판매하는 음료는 모두 장학재단에 활용되고 동지 때는 팥죽을 만들어 장학기금을 모았다. 각 신행단체는 기금마련을 위한 바자회를 진행했다. 아울러 불자들은 종무소를 방문해 십시일반 장학기금을 전달하고 인재불사에 동참하고 있다.

울산=하성미 기자

정토마을, ‘법화경 21일 장좌기도’ 회향

21일 간 릴레이 기도, 대표 기도법으로 자리해

재단법인 정토사관자재회 정토마을 국경없는민들레(원장 능행 · 이하 국경없는민들레)는 2월 6일 정토마을 대법당 및 정토마을 앞마당에서 ‘신축년 법화경 21일 독송 장좌기도’에 입재했다.

정토마을 장좌기도는 신년을 맞아 진행하는 정토마을 대표기도로 올해 13회를 맞았다. 21일 간 20여 명의 스님들은 〈법화경〉을 독송하고 생명을 위한 자비심을 위해 기도한다. 회향을 맞으면 경주 감포 문무왕릉을 방문해 방생한 후 마무리 된다. 이번 해 회향은 2월 26일이다.

국경없는민들레는 코로나19에도 지구촌 곳곳에 의료 구호 활동을 펼치며



생명을 위한 나눔 보살행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해에도 2억 7122만원을 모금해 해외 오지에 긴급구호 물품을 전달했다. 이뿐 아니라 진료소 건립, 의료봉사 등 국제 의료봉사를 실천해 왔다.

국경없는민들레는 그 힘의 원천을 법화경 장좌기도에서 찾는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용호복지관, ‘용호통합방과후 학교’ 선정

2월 15일, 부산교육청 업무 협약 체결

용호종합사회복지관이 2021년도 ‘용호통합 방과후학교’에 선정됐다. 용호종합사회복지관(관장 서은해)은 2월 15일 교육청 제1회의실에서 부산시 교육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용호종합사회복지관과 부산시교육청은 지역적 한계로 배움의 기회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학생들의 소질 및 적성계발에 도움을 주는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통합방과후학교는 남구 내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패키지과정을 제공하며 안전도우미 및 통학버스 운영을 통해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 · 하교 할 수 있도록 진행한다.



용호통합방과후 학교는 남구 내 10개 초등학교와 협약하여 4월에 개강하며 운영과목은 창의력쑥쑥과정(국 · 영 · 수, 코딩, 미술), 성장쑥쑥과정(국 · 영 · 수, 신체활동, 보드게임)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과목은 개별신청도 가능하여 가정에서 과목선택 후 수업에 참여 할 수 있다.

하성미 기자

창원불교聯, 제31회 이웃사랑 자비나눔

창원시불교연합회가 설날을 맞아 소외 이웃을 위해 자비나눔을 실천했다.

창원시불교연합회(회장 월도)와 금강자비회(이사장 원문)는 2월 5일 창원시청 2층 시청회의실에서 ‘제31회 이웃사랑 자비나눔 한마당’을 펼쳤다.

매년 명절인 설날에 창원불교연합회는 지역민을 초대해 연회를 진행하고 자비나눔으로 행복을 기원했지만 이번 해는 코로나19 예방 확산을 위해 비대면 지정기부 방식으로 진행됐다. 성금은 저소득 한부모 가정 40명에게 각 70만원 총2800만원, 모범청소년 30명에게 금강장학금 50만원 총 1500만원, 무의탁 노인 백미 지원금은 25명에게 20만



원 총 500만원, 창원시 시각장애인협회에 200만원, 총 5000만원이 전달됐다.

전달식에는 고문 원행 스님, 창원시불교연합회회장 월도 스님, 금강자비회 이사장 원문 스님, 허성무 창원시장, 강기철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등이 참석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백만원력 결집불사

- 부처님 성도지 인도부다가야에 한국사찰 분황사를 건립합니다.
- 육해공군본부 계룡대 호국 홍제사를 건립합니다.
- 세종시 광제사 및 한국불교문화체험관을 건립합니다.
-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를 건립합니다.
- 불교 병원·요양원을 건립합니다.
-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 기금을 마련합니다.
- 경주 남산 열암곡에 넘어져 계신 마애부처님을 일으켜 세웁니다.
- 10.27 법난기념관을 건립합니다.
- 위례신도시 종교시설을 건립 합니다
- 어려운 이웃을 위한 가칭)나눔기금을 조성합니다.

원력과 발심으로 한국불교 중흥을 이룹시다.
지금, 불자님의 참여가 한국불교의 희망입니다.

백만원력결집불사는 원력보살 100만명의 원력으로
한국불교의 내일을 여는 운동입니다.
한 방울의 물이 모여 강을 이루고 마침내 큰 바다가 되듯이
우리불자 한명 한명의 원력을 모아서
여러분의 각 가정과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능히 극복하고
불법은 널리 전해질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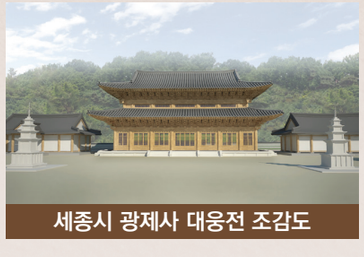
모연동참안내

▶ 매일 100원을 발우저금통에 보시
▶ ARS 060-700-0012(1통화,3천원)
▶ 후원계좌
농 협 301-0248-0882-41
국민은행 008601-04-152458
우 체 국 010579-01-005480
예금주 : 재) 아름다운동행(백만원력결집)
▶ 문의 02)6273-0108,0109

백만원력결집불사 모연은 아름다운동행을 통해서 기부됩니다.
재)아름다운동행은 대한불교조계종이 설립한 공익기부재단입니다.


인도 부다가야 분황사 조감도


계룡대 호국 홍제사 조감도


세종시 광제사 대웅전 조감도

www.buddhism.or.kr

대한불교조계종